

경제

광양·여수, 2015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행되면

4600억 매출 감소·4000명 일자리 잃어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도입 유보” 국회에 건의문

2015년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시행되면 전남 광양·여수지역의 철강·석유화학 부문에서만 4600억원의 매출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로 인해 4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됐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도입을 목표로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월12일 부문별·업종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2015년까지 10%, 2020년까지 30%의 온실가스 줄이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광양제철소가 있는 광양지역의 철강 부문에서만 3850억 800만원의 매출 감소와 이로 인한 취업 및 고용 감소가 각각 1874명, 1465

명 나타날 것으로 산업계는 내다봤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되면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여수지역도 석유화학 부문에서 185억4700만원의 매출 감소와 94명의 취업 감소, 74명의 고용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 철강 및 석유화학 부문의 전체 피해액은 4679억9000만원(철강 4477억5900만원, 석유화학 202억 31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과 신규 취업도 1843명(철강 1725명, 석유화학 118명), 2358명(2207명, 151명)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전체 광주지역 자동차·금형·광산업과 영암 대불산단의 조선 산업 등에 적용하면 광주·전남지역에서만

수 천억원대의 매출 감소와 수 천 명의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 전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군산·완주지역의 자동차 부문 매출 감소가 495억6200만원, 취업 및 고용 감소가 각각 445명, 368명으로 조사됐다. 전주지역의 제지 부문은 매출 14억9000만원, 고용 28명, 군산지역 석유화학 부문 매출 36억6800만원, 고용 48명 등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산업계의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업종별 15개 협회는 이날 고용과 신규 취업도 1843명(철강 1725명, 석유화학 118명), 2358명(2207명, 151명)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전체 광주지역 자동차·금형·광산업과 영암 대불산단의 조선 산업 등에 적용하면 광주·전남지역에서만

의무를 지지 않기로 선언했다”며 “우리나라만 배출권거래제를 서둘러 도입하는 것은 국제 흐름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과중한 비용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나 외국인 투자 기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국내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는 기업의 매출 및 고용감소, 물가상승 등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 법률안에 따라 유상할당을 5~100%로 적용하면 산업부문에서는 매년 4조7000억~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100% 무상할당 때에도 감축부담에 따른 배출권 구입 등으로 매년 4조2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산업계는 예측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자동차그룹은 27일 양재사옥 대강당에서 'Happy Move 글로벌 청년봉사단' 8기 발대식을 열었다. 내년 1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총 500명이 중국, 인도, 브라질, 라오스, 인도네시아에 파견해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등을 펼칠 계획이다. 사진은 행사 후 글로벌 청년봉사단 8기 단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올 농식품 수출 3억5천만 달러 돌파

aT광주·전남지사, 지난해보다 38% 늘어

광주·전남지역의 올 농식품 수출 실적이 3억5000만 달러를 돌파했다. 27일 aT광주·전남지사(지사장 이종경)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농식품 수출실적은 3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억5400만 달러보다 38.2%가 증가,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광주·전남지역 농식품 수출은 농산물이 1억83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40.1%, 수산물이 1억3400만

달러로 37.1%, 임산물이 2400만 달러로 29.6%, 축산물이 900만 달러로 39%가 각각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발효주 등 주류 9700만 달러를 비롯해 ▲전복 3900만 달러 ▲꽃 2600만 달러 ▲미역 2400만 달러 ▲유자차류와 면류가 각각 1400만 달러 ▲김 1200만 달러, ▲배 700만 달러 ▲파프리카와 개야지 살이 각각 600만 달러 등이다. 광주·전남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농식품 수출(65억5700만 달러)의 5.3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경지사는 “앞으로도 수출원예전문 생산단지 육성, 수산물 생산 기반 조성 등 안정적인 수출 농식품 공급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운영활성화 자금 등 수출업체를 다각적으로 지원하면 지역 농식품 수출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SKT 하이닉스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이닉스반도체 인수를 승인했다. SK텔레콤은 기업결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정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하이닉스 인수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정위는 27일 “이동통신업-DRAM 반도체제조업 간 혼합 결합과 낸드플래시 메모리제조업-이동통신중계기제조업 간 수직결합을 심사한 결과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하이닉스가 각각의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편이나 생산기술·유통경로·구매계층 달라 상호 경쟁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은 54.5%의 시장을 점유한 1위 업체다. 하이닉스는 DRAM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37.9%)에 이어 2위(22.0%)다. 공정위는 또 두 기업이 결합관계를 통한 지배력 전이가 어렵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수직결합은 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시장점유율이 10.2%로 높지 않은 점, 결합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삼성전자, 도시바 등 유력사업자가 여럿 존재하는 점이 감안돼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8일 하이닉스에 대한 정밀심사에 들어갔으며 채권단과 협의해 인수 마무리 시점을 조율할 예정이다. 최종 인수는 내년 2월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Table with economic indicators: 코스피지수 1842.02 (-14.68), 코스닥지수 491.64 (-9.73), 금리(국고채 3년) 3.39% (+0.01), 원·달러 환율 1158.80원 (+3.80). Includes a note: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올 분양 아파트 86%가 '중소형'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의 86%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올해 신규 분양 아파트를 면적별로 조사한 결과 26만6천238가구 중 전용면적 85㎡ 이하가 22만9천106가구로 86%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

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공급이 작년보다 약 4%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인천 공급량에서 85㎡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64%(1만4152가구)에서 올해 79%(7023가구)로 15%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연합뉴스

비주거용 건물 상승·증여세 오른다

내년부터 가격을 알기 어려운 비주거용 건물의 상승·증여세가 다소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바꿔 정기고 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비주거용 건물은 주택,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구분소유가 된 상업용 건물 등을 제외한 상가 등 건물을 말한다. 고시에 따르면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은 올해보다 3만원 오른 61만원으로 정해졌다. 건물구조 지수는 목조의 경우 90에

서 100으로 올리는 등 9~20% 높아졌다. 용도지수는 문화·집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아동·노인복지시설), 묘지시설, 공장시설(아파트형공장) 등을 상향 조정했다. 판매시설(도매시장)과 위탁시설(단란주점)은 9~11% 낮아졌다. 이 건물기준시가는 상속·증여제인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기준시가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30일부터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제공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금호건설 정해남 부사장과 캄보디아 프람 이브 텍 공공사업교통부 장관 등이 지난 26일 캄보디아에서 북서부지역 56번 국도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금호건설 제공>

금호건설, 캄보디아 270억 수주

국도 84.4km 공사... 내년 1월에 착공

금호건설(대표이사·사장 기옥)은 27일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가 발주한 캄보디아 56번 국도 공사를 2400만달러(270억원 상당)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는 캄보디아 북서부 반티(Batney)와 오도(Oddar)를 연결하는 84.4km의 국도의 도로 개선 사업으로, 내년 1월 착공해 2014년 4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금호건설이 지분 70%를, 황보종합건설이 30%를 가지고 함께 참여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이후 이번 수주까지 캄보디아에서만 총 4건의 대형공사를 수주해 국내 건설사 중 캄보디아에서 가장 많은 수주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2012 Gun-san Sa-man-gum Haemati Hangeo' (2012 군산 새만금 해맞이 행사). Features a sunset background with balloons and text: '새로운 다짐! 밝아오는 희망!', '2012 군산 새만금 해맞이 행사', '해맞이행사 | 떡국사랑나눔, 새희망쓰기(가훈), 소망풍선날리기, 대형 연(흑룡)날리기 등', '일시: 2012. 1. 1(일) 05:30~08:00 ※일출예상 07:44', '장소: 새만금 오토캠핑장 내(아미도 내측 방조제)', '※ 해맞이 1박2일 야영체험운영(새만금오토캠핑장 ☎ 465-8253, 1644-8253)', '주최: (사) 군산발전포럼 후원: 군산시, 군산상공회의소'.